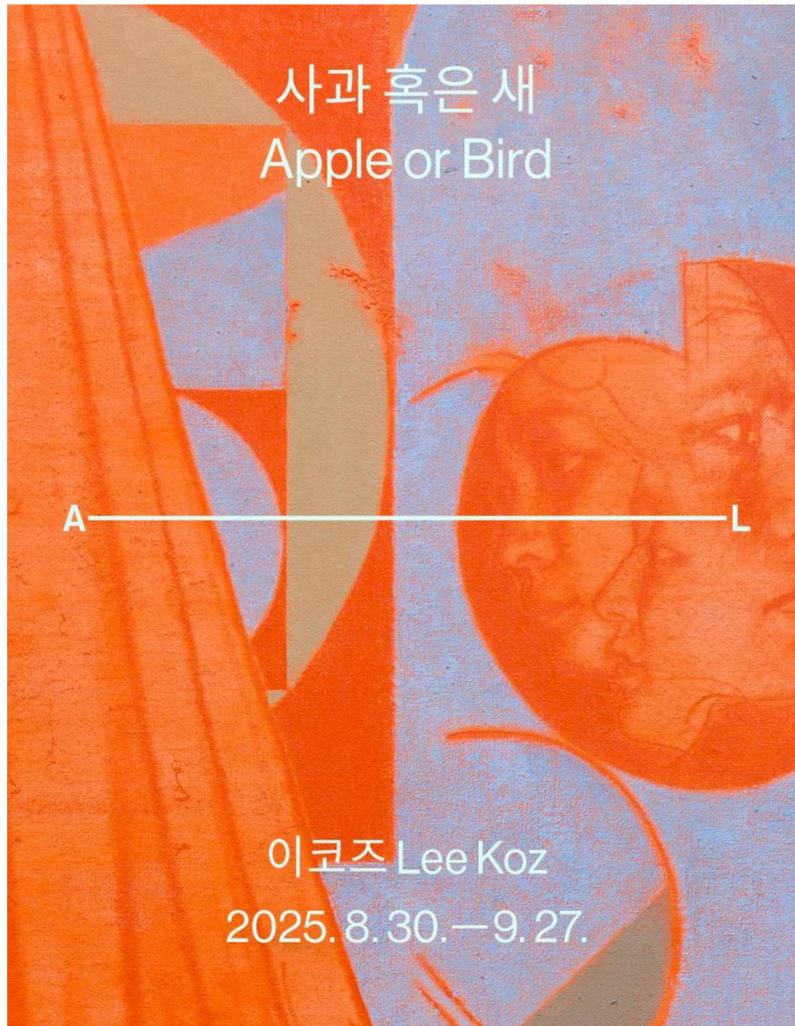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11쪽

《사과 혹은 새》



- 2025년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이코즈 개인전
- 에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이코즈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J-D 시리즈를 중심으로 전시 구성
J-D 연작은 현실과 유사한 꿈이 반복되어 실제와 뒤엉키는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기반
- 계곡, 마을, 장마가 온 계곡과 마을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되며 각각 에이라운지 2층 메인 방, 작은 방, 1층에 전시
- 총 18점의 회화 작품이 전시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사과 혹은 새》

참여작가: 이코즈

일 정: 2025년 8월 30일(토) - 9월 27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이코즈 (b.1997)

이코즈 (b.1997)는 무의식을 통해 축적되는 기억과 그것을 기술하는 기록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개인적 차원의 기록물이 이미지로 증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술적 상상을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반복되는 꿈의 기억을 기술한 꿈 일지에서 출발한 «J-D» 연작은, 꿈의 바탕이 된 특정 기억과 꿈속 장면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는 데서 겪은 혼란을 토대로 한다. 작가는 이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꿈을 글로 기록하고 그 일부를 회화 작업으로 옮기는데, 파편과도 같은 기억과 장면, 기록들은 회화의 소재로 화면 위에 오르며 각자 독특한 위치와 자리를 부여받은 채 때로 과장, 축소, 변형된다. 이로써 작가의 화면은 그가 겪었던 꿈이나 기억과 중첩되면서도 또 다른 서사가 발생하는 회화적 사건의 장소로 변모한다. 한편 «훈련일지 드로잉» 시리즈는 작가가 사회인 야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영상과 글로 소상히 남겨 온 훈련 일지에서 출발한 드로잉 및 회화 작업이다. 결국, 이코즈에게 ‘기록’의 행위는 작가 내부의 혼란에 대한 대응책임과 동시에 작가를 작업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코즈는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수료한 상태이다. 작가는 A.P. 23, 서울(2023) 및 공간풀무질, 서울(2021)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등근 빈자리를 쥐고», 갤러리 앵앤플로우, 서울(2023); «소생된 폭발음을 기록하며», 안팎 스페이스, 서울(2023); «모호한 신호를 감지하는 법», A.P.23, 서울(2023) 등의 기획전에 참가했다.

표상하는 장치'이자 심리적 파동으로부터의 방수포, 즉 안전막이 된다. 즉 감정 조율에 미숙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감정번역으로 재조직한 것이다.

여행객들의 찰나적 유희를 보장하는 연극적 장막은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탐색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첫 작품인 <바라보다> 시리즈에서 감지된다. 작품 속 인물은 성별, 나이, 직업 등 누군지 간파하기 어려운 존재다. 바로 얼굴 혹은 몸을 휘감은 천 때문이다. 그 '미지의 존재'는 정작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지만 천을 방어막 삼아 자의식의 탐색을 시도한 것이다. '언캐니한 감정을 연출'한다는 작가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을 생경하게 하는 그 시도는 경계적 사유에서 가능하다.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 인간과 미지의 존재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초기 인식은 <최정자할머니덕 현관에 감나무 2 그루와 아궁이와 담장 그리고 클레마티스>(2023)에서 중심인물의 모습을 빌어 보다 구체화된다. 그의 몸을 휘감고 있는 천 위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데, 이는 평면적 요소와 함께 '다양한 시선의 이동을 유도하는 의도적 장치'가 된다. 심리적 방수포이자 차양막이었던 그의 휘장은 뽀플린 식의 말러리슈적 구현 속에서 감정번역 이상의 새로운 번역을 꾀하게 된다.

이제 이코즈의 시선은 이상의 언어와 비언어적 도구의 경계 위에서 회화적 재편에 나선다. <물잠자리가 되어 바라본 이야기>는 물잠자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다.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세계는 형상과 윤곽이 해체되고 혼재된 상태다. 그 시도는 기존의 시각경험 및 언어에 질문함으로써 전통적인 회화적 재현체계에 틈새를 벌여놓는다. 이를 계기로 작가는 꿈속에서 들었던 사과 먹는 소리가 실상은 자신이 자는 방 창문 앞 새소리였다는 '사과 혹은 새'에서와 같이, 점차 감각과 기억이 트랜지션되는 경계적 사유를 본격화한다. 동시에 구체적 형상 주위로 선과 도형이 서로 중첩/침투하는 화면은 회화의 본질적 속성, 즉 평면성을 환기시킨다. 구상과 추상 언어의 혼용은 리듬감, 강약 효과, 이질적 표면처리, 경중의 차이 등을 발산하며 회화라는 재현체계가 결코 시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설파한다.

회화적 재편은 이질적 감각의 혼용 속에서 한층 가속화된다. 당겨짐과 소원함, 두통함과 평평함, 묵직함과 가뿐함 사이를 경유하는, 그의 균형 잡힌 연출은 감정번역 이상의 긴장과 이완 상태를 유도한다. 또한 현실과 꿈, 의식과 무의식 외에도 안과 밖, 실재와 이미지의 경계가 와해된다. 실제로 우리는 작품 제목을 단서로 백발의 할머니, 가옥, 사다리, 삽, 옥수수, 싱크대 수전 등 구체적 형상을 통해 작가의 개인적 서사를 읽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내 반복적 패턴과 평면처리는 우리의 추적을 방해한다. 언어적 · 비언어적 도구를 불문하고 이러한 시도와 좌절은 번역의 불완전성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특히 이코즈 식의 구상과 추상의 선환적 혼용 방식은 질 들뢰즈 식의 아플라(aflat), 즉 '공간화하는 물질적 구조'를 통해 재현에 대해 질문하는 비언어적 전략이다. 마치 베이컨의 회화 속 '납작한 원통의 내부'에 감금된 그로테스크한 형상처럼, 인물과 기하 패턴이 혼재된 이코즈의 이미지는 더이상 장소가 아닌 '사건의 문제'가 된다. 즉 구상과 추상이 중첩된 화면은 다양한 참조 속에서 회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비언어적 장치는 바로 그의 작품 분위기를 주도하는 파랑과 주황의

○ 전시 서문

‘사과 혹은 새’, 그 경계적 사유

이코즈의 그림은 꿈에서 소환된 이미지와 기하 패턴의 조합으로 가득하다. 그의 구상과 추상적 언어는 서로 중첩되어 침투하고, 때로는 선회하면서 명확한 의미 해석을 방해한다. 얼굴 옆 모습은 어느새 도형을 감돌아 흐르고 물수제비를 뜨는 낭만적 행위는 줄무늬 위에서 납작해진다. 사다리 타는 인물이 돌연 나무 넝쿨 위에서 도형화되고 창고 안 농기구는 화면을 구획하는 패턴이 되며, 수영 선수가 수면 위로 그려내는 파동은 화면 위에 파장을 일으킨다. 알 듯 모를듯한 이미지들의 접합과 교란 상태. 그것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실재와 회화 사이에서 작가가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모색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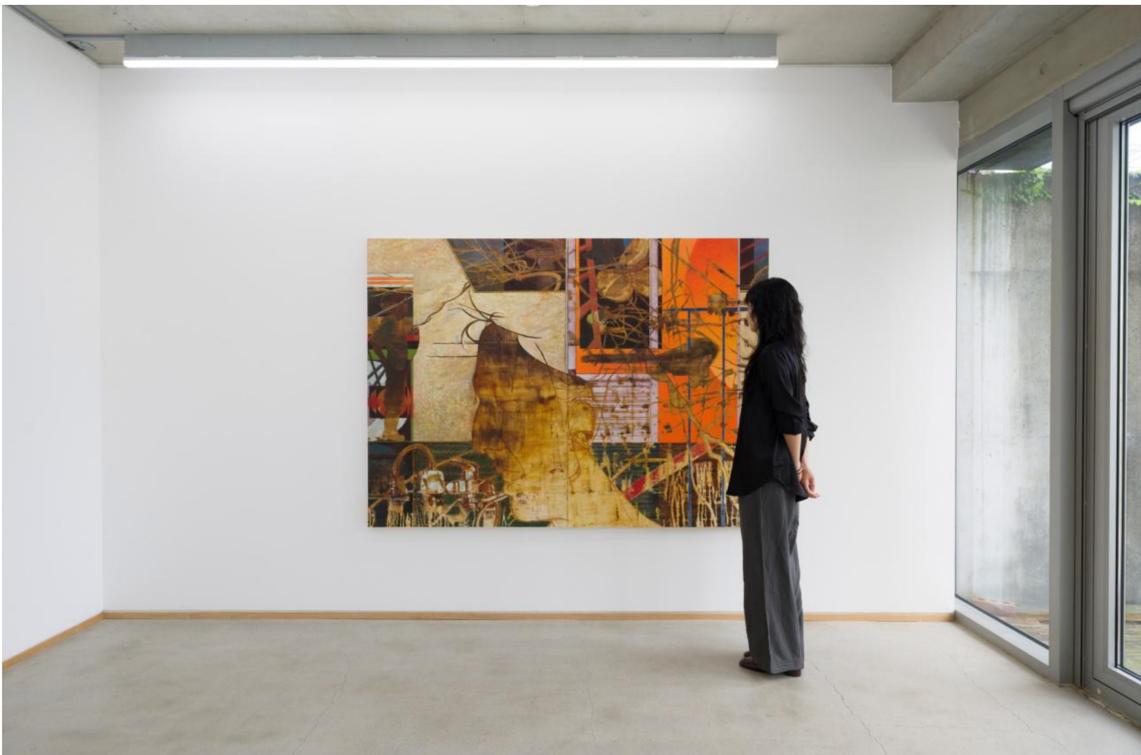
작가는 언어적 도구와 비언어적 도구 모두를 참조하고, 구체적 이미지와 그와 상반된 기하추상 간의 경계적 사유 속에서 기억 재편과 회화적 재편을 시도한다. 우선 그의 화면은 언어적 기록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어린 시절 기억에서 비롯된 꿈을 기록해 왔다. 꿈의 내용은 인과관계 없이 빠르게 기술되면서 단순한 정보 나열에 불과할 정도로 ‘갈겨진’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그 기록은 반복된 꿈으로 인해 ‘꿈의 일지’가 되었다. 캔버스 위에서 서로 침투하는 파편적 이미지들,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선과 면들은 ‘꿈의 일지’의 또 다른 번안이다. 그러나 유년의 기억과 관련한 꿈은 단순히 외상적 체험에 기인한 무의식의 반영에 그치지 않는다. 꿈을 언어로 기록하고 그것을 비언어적 조형 언어로 옮기는 재편 과정에는 여러 차례의 번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1 차 번역은 되풀이되는 꿈에서, 2 차 번역은 깨어난 후 ‘갈겨진’ 독립적 단어들에서, 3 차 번역은 그것을 조형 언어로 캔버스 위에 구현했을 때 일어난다. 꿈의 번안 과정은 의식의 연장인 것이다. 이후 관객에 의한 자유로운 번역 또한 기다리고 있다. 제목 외에는 딱히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그의 작품 앞에서 4 차 번역이 이뤄지는 것이다. 작가의 설명처럼 ‘서술의 부재’로 인한 ‘새로운 서술적 상상’을 통해 이제 실제와 기억 사이의 연계성과 개연성은 더욱 느슨해진다.

기억 재편에서의 구심점은 바로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위치한 할머니 집이다. 그 근처에 있는 상·하옥계곡이 있는데, 그곳 여름은 피서객으로 붐비고, 그들의 텐트가 공간을 점유한다. 어린 시절 작가의 눈에 그들은 호기심과 관찰의 대상이었다. 물구경 하러 온 사람들을 ‘구경’하던 어린아이는 그들의 경험에 동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 기억은 성인이 된 후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위를 가로지르는 드레이퍼리는 파편화된 기억을 포착하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꿈의 단서, 즉 텐트와 타프다. 죽장면 계곡을 뒤덮던 그 장막적 연출은 피서객들의 한시적 즐거움과 여유를 보장하지만 어린 현지인에게는 시공간적 괴리감을 강화할 뿐이었다. 작가는 캔버스 위를 가르는 그 장막들을 통해 화면을 구획하기 시작한다. 그 회화적 번안은 2 차 번역 때와는 달리 ‘갈겨진’ 상태가 아니다. 심지어 그는 흔한 디지털 편집기능도 사용하지 않는다. 떠오른 이미지들을 포착하기 위해 그는 제작 단계마다 작품 이미지를 출력하고, 그 위에 손으로 수차례 도안을 고안한다. 이는 ‘음절과 문장, 문단의 구분 없이 적혔고 오타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로 가득’한 꿈의 일지를 윤색하는 과정이다. 피서객의 일시적 차양막은 그의 캔버스 위에서 심리적 장치로 소환되면서, ‘긴장된 심리와 불안함을

○ 전시 내용

이코즈의 개인전 《사과 혹은 새》는 2025년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주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에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이코즈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J-D》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품이 구성된다. 《J-D》 연작은 그가 어린 시절 시간을 보내었던 외할머니 집이 위치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리즈로, 현실과 유사한 꿈이 반복되어 실제와 뒤엉키는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기반한다. 그의 화면은 꿈의 내용의 기록에서 시작하여, 구체적 이미지와 그와 상반된 기하추상 간의 경계적 사유 속에서 기억 재편과 회화적 재편을 시도한다. 소재는 크게 계곡, 마을, 그리고 장마가 온 계곡과 마을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에이라운지 2층 메인벽, 작은 방, 1층에 전시되며, 벽면을 푸른 색으로 칠해 보다 선명히 구분을 두었다.

A-L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

A-L

병치다. 그의 매체적 실험은 색채의 대비 효과를 통해 경계적 사유를 강화한다. 그의 작업은 상당히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기억에 기반하지만, 파랑과 주황의 색채대비를 통해 비현실적 공간을 연출한다. 그러나 ‘사과 혹은 새’의 사이감각을 시각화하듯, 파랑과 주황의 보색적 대비는 실재와 재현 간의 암묵적 간극을 환기시킨다. 본래 회화는 다시 현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시간적, 물리적 극간이 존재한다. 작가는 캔버스 전면과 측면을 보색 대비를 이루는 색채로 채운다. 그 효과는 영화 스크린의 얇은 막과 유사하다. 꿈의 흔적과 패턴의 조합은 영화 속 콜라주적 기법을 연상시키고, 캔버스 프레임에 칠한 파랑 혹은 주황은 영화적 여운에 취한 우리의 현실감각을 건드리는 엔딩 크레딧과 닮았다. 꿈이 기술된 이코즈의 회화는 회화의 정태적 개념에 틈새를 벌리는 자기참조적 번안 매체인 것이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기록이라는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설명한 바 있다. 꿈과 기억을 언어로 채집하고 비언어적 도구로 번안하는 그의 강박적 과정은 형태적 상응이나 내러티브적 전개를 비껴간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술하는 것, 그것은 한쪽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의지의 발현이다. 이코즈의 기술 과정은 이러한 경계적 사유를 통해 끊임없이 기억과 이미지를 재편한다. 그 수축과 이완 속에서 작가는 전통적인 재현체계를 고수하는 대신 회화 자체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개념에 질문을 던진다. 언어와 비언어의 혼용으로 인한 작가의 의도적 오역 과정은 치유라는 또 다른 차원의 체계를 재편해간다. 사실 작가는 첫 개인전에서부터 작품을 ‘방공호’로 표현했다. 이코즈는 필명에 담긴 의미처럼 심적 치유를 향한 작가적 신념을 고수하며 그 실천적 번역 행위를 지속해가고 있다. “계곡”, “마을”, “장마가 온 계곡과 마을”로 주제를 나눠 진행되는 이번 전시 또한 서로 다른 영역과 의미 간의 뒤섞임과 교환, 즉 그 경계적 사유를 통해 진정 안온한(코지의 의미로) 방공호인 것이다.

○ 대표 작품



J-D 최정자씨덕 현관-감나무 두그루-아궁이-담장-클래마티스

#E

2025

Oil on canvas

145.5 × 200.0 cm



J-D 복구 족장면-하옥계곡 #A

2025

Oil on canvas

193.9 × 130.3 cm



J-D 정면-감나무-집 #A

2025

Oil on canvas

162.2 × 97.0 cm



J-D 복구 족장면-하옥계곡-선녀탕 #A

2025

Oil on canvas

181.8 × 227.3 cm

○ 전시 전경

